

# KDF

## 민주주의 리포트

Issue & Review on Democracy

2022년 2월

제69호

# 민주주의 지수의 유용성과 한계

: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발행일 2022년 2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문의처 [edit@kdemo.or.kr](mailto:edit@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 민주주의 지수의 유용성과 한계

## :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지표 개발과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영역인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그리고 시민의 자유가 하락하는 현상을 통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제기한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의사결정의 효율성, 정부 안정 그리고 안보 등에서 정부의 실적을 유지하는 중국 모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실재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평가 지표이지만 정치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실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아시아라는 공간적 범주에 초점을 맞춰 지역 내 타당성과 보편성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평등의 원리를 측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표의 개발과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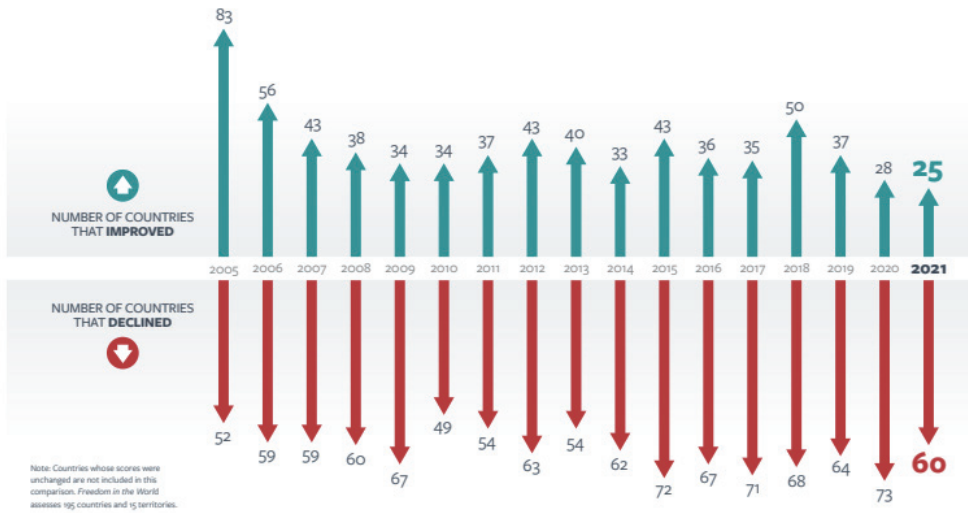
### 1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어느 정치체제보다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치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권력에 대한 대중통제(popular control)가 실현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남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은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보호받는 인구의 증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배타적 인종주의 및 민족주의 등에 기초한 정치적 극단주의 확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에 따른 시민적 자유 제한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old

democracies)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포퓰리즘의 확산, 군부 쿠데타 등에 의한 권위주의로의 회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약화,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비민주주의인 중국 모델의 부상 그리고 인종 및 민족에 기초한 차별과 배제 등에 의해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많은 곳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민주주의 후퇴 경향(2005~2021)



※ 출처: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2, p.2. (검색일 2022/03/11)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2-02/FIW\\_2022\\_PDF\\_Booklet\\_Digital\\_Final\\_Web.pdf](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2-02/FIW_2022_PDF_Booklet_Digital_Final_Web.pdf)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해서 2021년에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한 사례는 167개국 중 44.3%인 74개국이며, 반면 민주주의 지수가 상승한 사례는 47개국(28.1%)이다(Democracy Index 2021, 7).

〈표 1〉 Democracy Index의 민주주의 유형별 국가 수 변화(2017~20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완전한 민주주의	19(11.4)	20(12.0)	22(13.2)	23(13.8)	21(12.6)
결함있는 민주주의	57(34.1)	55(32.9)	54(32.3)	52(31.1)	53(32.7)
혼합체제	39(23.4)	39(23.4)	37(22.2)	35(21.0)	34(20.4)
권위주의체제	52(31.1)	53(31.7)	54(32.3)	57(34.1)	59(35.3)

※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리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Freedom House와 EIU의 연례보고서의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즉, Freedom House는 Freedom in the World 2022의 제목으로 ‘권위주의의 세계적 팽창(The Global Expansion of Authoritarian Rule)’을, 그리고 EIU의 Democracy Index 2021은 ‘중국의 도전(The China challenge)’을 제목으로 정했다. 이 글은 EIU의 Democracy Index 2021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지수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의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EIU의 “민주주의 지수”,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세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프리덤하우스의 자유 지수, Polity project의 Polity V, V-Dem Institute의 Varieties of Democracy와 함께 공신력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 지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년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매년 165개국과 2개의 부속국(령)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 한정하여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원리와 실제 작동을 평가한다. 즉, EIU는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을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주주의가 실제 작동하는 질적 수준, 즉 실질적 민주주의의 측정을 목적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지수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능, 정치문화 그리고 정치참여의 실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과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의 기능(the 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그리고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라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지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점까지이다. 즉, 5개의 영역을 0점에서 10점까지 측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각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한다. 민주주의 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항목은 총 60개 항목이며, 이들 항목은 0과 1이라는 2점 척도와 0, 0.5 그리고 1이라는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Democracy Index의 하위영역과 구성내용

영역	구성내용	문항수 (60)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보통선거권,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정당 재정지원의 투명성,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정당결성 및 결사의 자유, 야당의 집권 가능성 등	12개
정부의 기능	선출된 대표에 의한 정책결정, 정부의 대내외적 자율성, 수평적 책임성, 정보접근의 개방성과 투명성, 부패 정도, 정부정책 수행의지와 능력 등	14개
정치참여	투표율, 의회 내 여성분포, 정당 및 정치집단 가입 정도, 합법적 시위발생 정도, 정치관심, 문자해득률 등	9개
정치문화	사회적 합의의 정도, 의회나 선거를 우회한 강력한 지도자, 군, 기술관료에 의한 지배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 정도 등	8개
시민적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성, 법앞의 평등, 차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인식 등	17개

※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1.

EIU는 각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기준으로 정치체제 유형을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혼합체제(Hybrid regimes)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로 분류한다. 먼저 완전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지수가 8.1에서 10 사이에 있는 국가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지수가 6.1에서 8.0 사이에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혼합체제는 4.1에서 6.0 사이에 있는 국가이며, 4.0 이하인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의 측정에 있어 독특성은 세계가치조사(the World Values Survey),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 그리고 갤럽조사(Gallup polls) 등과 같은 여론조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조사 결과가 누락된 국가의 경우 유사 국가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전문가 평가를 활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투표율과 행정-입법 간의 균형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한 점이다.

정리하면 정치적 영역의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를 측정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주의 원리와 실재를 평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영역을 측정함으로써 각 국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결함을 찾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문가의 응답과 더불어 결측값을 보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사회경제적 평등, 경제적 자유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로버트 달(R. Dahl)에 따르면, 현실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목표로 한다(달 2002). 정치적 평등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강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측정할 때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실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즉, V-Dem과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 또는 사회적 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 3 지구촌 민주주의의 위기 경향과 원인: ‘민주주의 지수 2021’를 중심으로

EIU에서 2022년 2월에 발행한 ‘민주주의 지수 2021’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21년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 지수 값의 하락뿐만 아니라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 수의 하락과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 수 상승의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즉, 2020년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캐나다와 스페인이 2021년에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으로써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전 지구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별 민주주의 지수의 변화 추이(2006~2021)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6
Asia & Australasia	5.46	5.62	5.67	5.67	5.63	5.74	5.74	5.70	5.61	5.56	5.51	5.53	5.58	5.44
Eastern Europe	5.36	5.36	5.42	5.42	5.40	5.43	5.55	5.58	5.53	5.51	5.50	5.55	5.67	5.76
Latin America	5.83	6.09	6.13	6.24	6.26	6.33	6.37	6.36	6.38	6.36	6.35	6.37	6.43	6.37
Middle East & North Africa	3.41	3.44	3.53	3.54	3.54	3.56	3.58	3.65	3.68	3.73	3.62	3.43	3.54	3.53
North America	8.36	8.58	8.59	8.56	8.56	8.56	8.56	8.59	8.59	8.59	8.59	8.63	8.64	8.64
Western Europe	8.22	8.29	8.35	8.35	8.38	8.40	8.42	8.41	8.41	8.44	8.40	8.45	8.61	8.60
Sub-Saharan Africa	4.12	4.16	4.26	4.36	4.35	4.37	4.38	4.34	4.36	4.32	4.32	4.23	4.28	4.24
World average	5.28	5.37	5.44	5.48	5.48	5.52	5.55	5.55	5.53	5.52	5.49	5.46	5.55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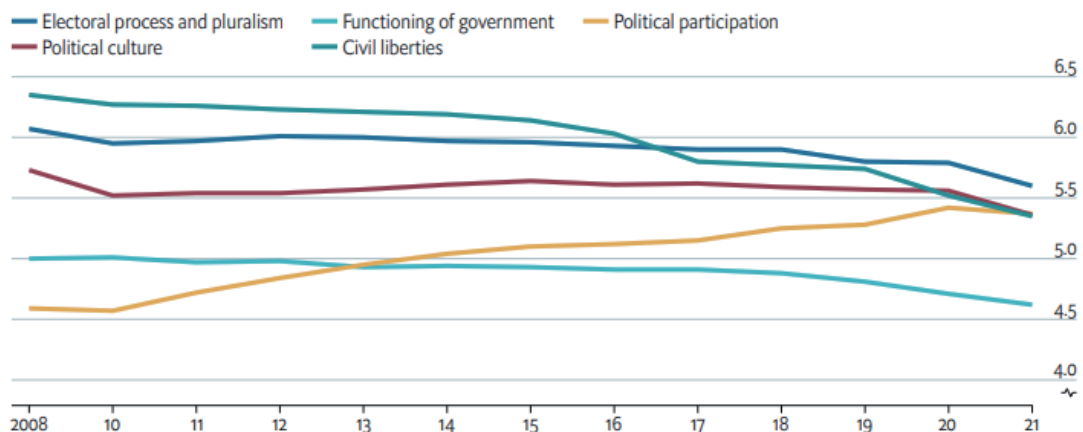
※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1. p.39

세계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0년 5.37에서 2021년 5.28로 0.09 하락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동유럽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후퇴는 2019년을 기점으로 서유럽 및 북미지역을 포함한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특히 2021년은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 폭이 크다. 예를 들어 중남미지역(0.26), 북미지역(0.22) 그리고 아시아와 오스트랄시아지역(0.16)에서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 폭이 컸다. 반면 동유럽지역은 유일하게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 원인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EIU는 공통된 원인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언론과 종교의 자유 제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회의, 강력하고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강력한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영향은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유, 정치문화 그리고 정부의 기능 영역의 지수하락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는 쿠데타 등의 영향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림 2〉 민주주의 지수 구성영역별 추이(2008~2012)



※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1. p.2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지수 값이 2020년을 기점으로 낮아졌다. 정치참여는 2008년 이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4개의 영역의 지수 값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의 시민의 자유와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영역의 지수는 2020년에 비해 가장 큰 폭(-0.47)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역 조치, 즉 거리두리 및 모임 금지 조치 등에 따라 언론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의 약화는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식적 과정과 조건이 불완전하게 작동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 재정의 투명성 문제 등에 의한 결과이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후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기능(-0.38)과 정치문화(-0.37) 영역은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당의 역할에 대한 신뢰 하락, 부패와 책임성의 결여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수 값이 하락하였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하락과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상승은 정치적 극단주의에 기초한 포퓰리즘 또는 권위주의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의사결정의 효율성, 정부 안정 그리고 안보 등에서 정부의 실적을 유지하는 중국 모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율이 떨어지는 실적 위기와 달리 중국 모델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실적을 뽐내므로써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스차 몽크(Yascha Mounk)는 시민들이 권위주의적 대안에 눈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의 실적 위기를 지적하고, 포퓰리즘 운동은 이 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요소를 파괴하려 한다고 지적한다(2018, 171).

#### 4 EIU 민주주의 지수의 한계와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는 목적은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만 아니라 부족한 영역을 찾아 개선하여 민주주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가? 즉,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서의 유용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의 적실성이 존재하는가?

먼저 민주주의 지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실재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지표로서 유용성을 갖는다. 그러나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 정치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지수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평등과 시민적 자유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실천이 정치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더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정의와 결합해야 한다(Mounk 2018, 170). 그러나 민주주의 지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측정하지 않으므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실재를 평가하는 잣대로서 타당성과 적실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 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원리와 실재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영역이 9.58로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속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 기회의 평등, 정당 결성의 자유, 정당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결함이 존재한다. 즉, 낙선운동, 투표독려운동 등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현직 의원과 정치신인 간 선거운동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또한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결성 조건(서울 포함 5개 광역시도와 1,000명 이상의 당원)에 의해 정당 결성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T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과 실체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지수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특징인 사회경제 및 정치영역에서의 엘리트 카르텔과 그에 따른 후원주의와 가산주의라는 정치문화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엘리트에 의한 독점복합체가 정치적 평등과 시민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후원주의와 가산주의는 부정부패, 민주적 책임성의 결손 등을 결과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지수는 이 같은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성과 적실성의 한계를 보인다.

아시아 국가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식민지와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권력 카르텔이 해체되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영역 전반에서 이들 카르텔에 의한 권력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권력구조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지체시키거나 후퇴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의 개발과 조사가 필요하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서구의 역사문화적 발전과정에서 정립된 민주주의 개념에서 출발한 지표와 달리 아시아라는 공간적 범주에 초점을 맞춰 지역 내 타당성과 보편성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형철 2012, 101).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시민혁명과 차티스트 운동 등을 통해 독점화한 권력 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그 결과, 평등한 정치적 권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 그리고 권력분립 등에 기초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는 독점적 권력 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향한 투쟁의 산물이기보다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이식되거나 식민지 모국의 제도적 유산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미 존재하던 권력 카르텔은 성격만 달리 한 채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권력자원의 불평등은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의 평등 속에서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 정치체제이다.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자유라는 원리를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즉, 평등이 없이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불평등한 조건을 전제로 형성된 독점 카르텔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아시아 국가는 독점적 권력 카르텔의 해체를 통한 평등과 자유의 원리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아시아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민주주의 발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과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보편적 조건의 평등과 실질적 자유의 실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계급·계층, 인종, 종교, 성별, 젠더, 학력 그리고 소득 등 범주적 불평등에 따른 권력자원의 독점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주어진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 삶의 차원에서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는 기존 민주주의 지수와 달리 권력 카르텔의 해체 정도, 권력자원의 분산과 접근 가능성 그리고 권력자원의 불평등 등의 실제적 조건과 정치적·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평등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과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 Democracy Index 2021: The China challenge. (<https://www.eiu.com>) (검색일 2022.03.07)
- Freedom House. 2022. Freedom in the World 2022, (<https://freedomhouse.org>) (검색일 2022.03.11)
- 김형철. 2012. "아시아 민주주의의 질: 지표의 구축전략과 과제." 『비교민주주의연구』제8집 2호, 99~131.
- 달, 로버트(김왕식 역). 2002. 『민주주의』 서울: 동명사.
- 몽크, 야스차(함규진 옮김). 2018. 『위험한 민주주의』 서울: 와이즈베리.

## 민주주의 지수의 유용성과 한계

: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

**발행일** 2022년 2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